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계명대학교

김시현

学籍番号 k2590003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교로의 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일본어 회화 실력이 부족하여 혼자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관리실 선생님들과 교환학생 담당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안전하고 즐거운 유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심하게 베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저녁 늦은 시간이었고 약도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는데, 다행히 기숙사 관리실 선생님께서 직접 소독을 해주셔서 빠르게 흉터 없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중 하나는 유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주방을 빌려 각자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던 경험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전통 요리를 소개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요리 실력이 뛰어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함께 여행을 가거나 놀면서 많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만 유학생 메구미와 함께한 피크닉입니다. 미도리의 날을 맞아 공원과 동물원 입장이 무료였기 때문에 신주쿠 교엔에서 직접 만든 도시락을 먹으며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 친구와 하루 종일 함께 보낸 날이었기에 몇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 생활 중간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주변 유학생들이 많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디저트를 사다 주거나, 혼자 기숙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라인으로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유학생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